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양충모 남원시장, 기획예산처 예산실 방문해 핵심사업 적극 협조 요청

남원시에 따르면 양충모 남원시장은 10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을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양 시장은 남원시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을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양 시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총사업비 640억원, 국비요구액 40억원) △남원경찰수원원 건립(400억원, 10억7천만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 22억8,500만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80억원, 40억원)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립 지리산 숲채원 조성(300억원, 2억원), △지리산권 탐방로 정비사업(70억원, 3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하고 △하도·입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양충모 남원시장은 10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을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귀석·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시민 안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비롯한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중점사업 15건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베트남 빈롱성 · 껀터시와 문화관광 협력 강화

베트남 찾아 국제협력 기반 마련

순창군이 2026 예비 글로벌축체인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지방정부와 문화관광 분야 국제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빈롱성과 껀터시를 방문해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문화·관광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식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마쳤다. 또한 현지에서 순창장류제와 순창의 주요 관광자원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펼쳤다.



순창군과 빈롱성, 껀터시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양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공동 홍보 △문화관광 축제 상호 참여 및 운영 경험 공유 △문화

교류와 전통생활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 △순창장류축제와 베트남 대표 축제 간 상호 홍보 및 관광객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해 문화·관광 분야의 정식 업무협약 체결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번 베트남 방문의 후속조치로 2026 순창장류축제에 빈롱성과 껀터시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시군 선정

순창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2026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도내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순창군은 6월말 기준 재정집행 평가

에서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분야에 각각 각군 2위와 3위를 달성했다.

군은 연초부터 부군수를 중심으로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한정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전북시민대학 임실캠퍼스' 본격 운영

임실군이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전북시민대학 임실캠퍼스'를 본격 운영한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지역 대학이 협력해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지역 대학의 전문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도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실군은 올해 전북시민대학 지역캠퍼스 운영사업에 참여해 원광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금융·건강·신체활동 분야 5개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임실에서 활용하는 ChatGPT 사용법 △행복한 노후생활과 금융 이해 △한의학을 통한 체질 건강관리 △아로마와 심잉블로 설계하는 뇌 휴식 △근기능 회복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과정별 6~8회에 걸쳐 진행되며, 과정별 15~30명씩 총 90여명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장소는 수강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임실군청 5층 주민정보화교육센터와 농민교육장, 종합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활용한다.

수강신청은 20세 이상 임실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이다.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8월 25일 수강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득수 군수는 "배움에는 나이와 때가 없는 만큼 전북시민대학 임실캠퍼스가 군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뜻깊은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친환경 과립형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기 운영중인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 공급하는 미생물(액상, 연간 200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역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반영 내용은 축산 농가 환경 개선 및 지역 농가들의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2026년~2027년까지 2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면적 494㎡)에 '친환경 과립형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예산으로 2년간 총 31.2억원(연 15.6억원, 국비/시비 각 50%)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신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과립형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을 통해 원예용 및 축산물 미생물 배양시설이 구축되면 기존 액상 미생물을 공급에 더하여 연간 600톤 규모의 과립형 미생물 공급이 새롭게 이루어져 농지 토양 개량 및 연작 장애 개선 등 농작물 재배 환경 개선을 통한 작물 생육 증진,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한 농가 경영 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거버넌스 기반 환경교육강사 시범운영

임실군은 오는 9월부터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환경교육강사를 직접 현장에 배치, 본격적인 교육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 교육은 경로당, 어린이 관련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주민 생활 공간에서 직접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참여와 실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절차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가 군에 신청하면, 수요에 맞는 강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8월 14일까지 탄소중립 실천교육 홍보와 수요조사가 진행되며,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현장교육과 성과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환경교육강사 시범운영은 지역공동체와 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체제로 추진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현업업무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나선다

남원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봉읍 행정복지센터와 농민교육장, 종합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7월부터 3개월간 실시되며,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 환경정비 등 현업업무와 청사 내 작업환경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발굴, 기존 안전조치의 적정성 점검,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개선 필요사항 도출 등을 추진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 안전관리 당부

순창소방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여름철 차량 안전관리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단시간에 60℃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차량 결함이나 전기배선 이상, 엔진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순창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출발 전 엔진룸과 냉각수·오일 상태 점검 △차량 내 인화성 물질 및 배터리 제품 장시간 방치 금지 △소화기 비치 △주거기적인 차량 정비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행 중 연기가 난 냄새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주차한 뒤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해야 하며, 무리한 초기 진화보다 신속한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닫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